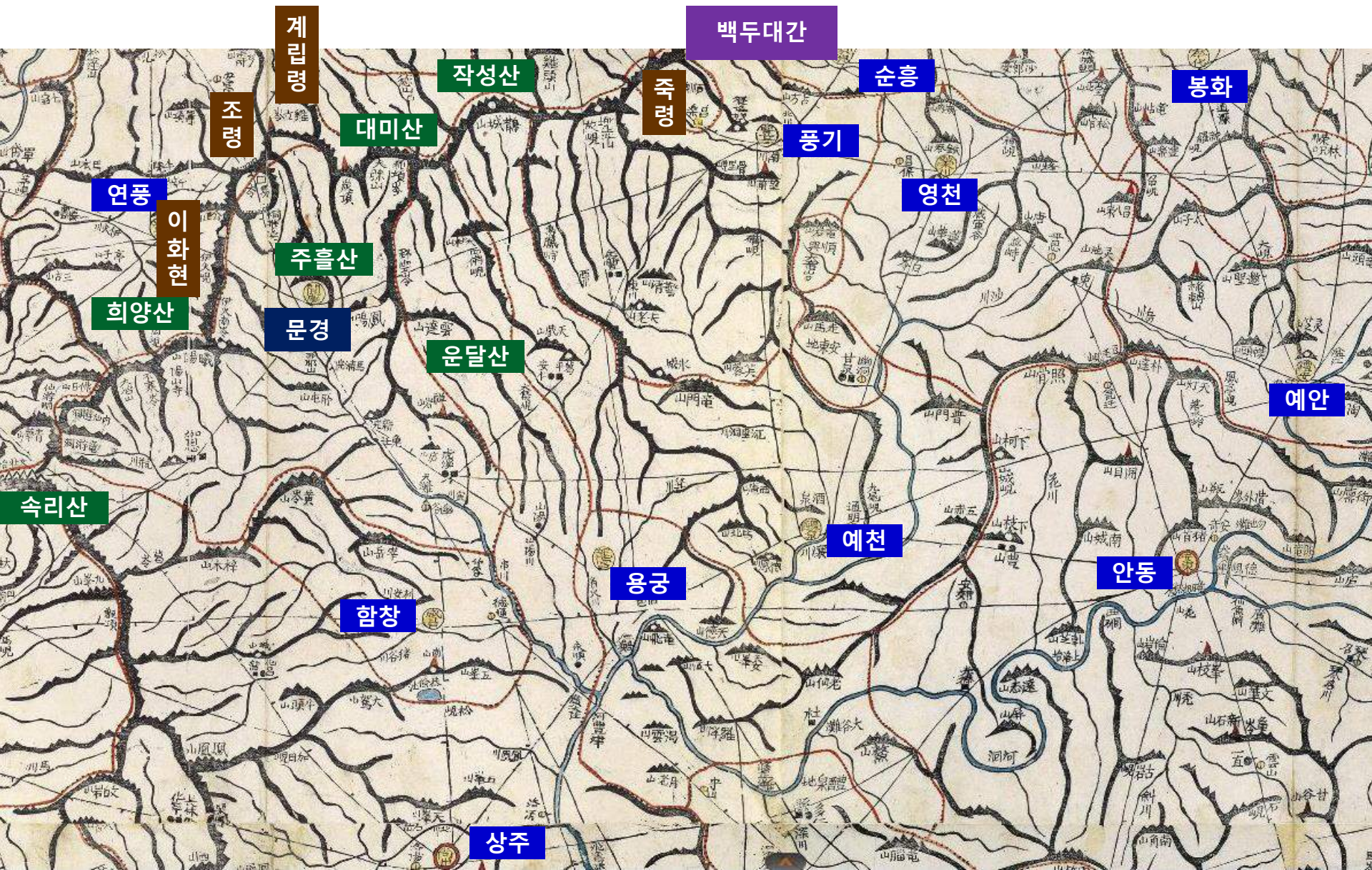


사람의 길, 문경새재

여운황
(문경시 문화재관리팀장)





백두대간

계립령

작성산

죽령

순흥

봉화

풍기

영천

연풍

이화현

대미산

주흘산

문경

희양산

운달산

예천

속리산

용궁

예천

안동

함창

상주

땅, 산, 물, 그리고 길

天下之形勢視乎山川

천하의 형세는 산천에서 볼 수 있다.

山川, 山水
山河, 江山

땅 = 산 + 물

天下之形勢視乎山川山川之色絡闕乎都邑然不考古今無以見因革之變
不綜源委無以識形勢之全

正方位辨里道二者方輿之眉目也而或則略之嘗謂言東則東南東北皆可謂之東審
求之則方向而里道參差里同而山川回互圖繪可憑也而未可憑記載可信也而未可信
惟神明其中者始能通其意耳若并方隅里道而去之與面墻何異乎

名山支山之端也其間有特峙者為有並峙者為連峙並峙者為山主分而脈本同其

間或起或伏有巽然梯起者有判然并峙者有連接于百里雖異名而宗山氣云雷也然山上起數龍其奇辰
經川支流水之大端也其間有混流者為有分流者為並流絕流者為水主合而源各異其間或合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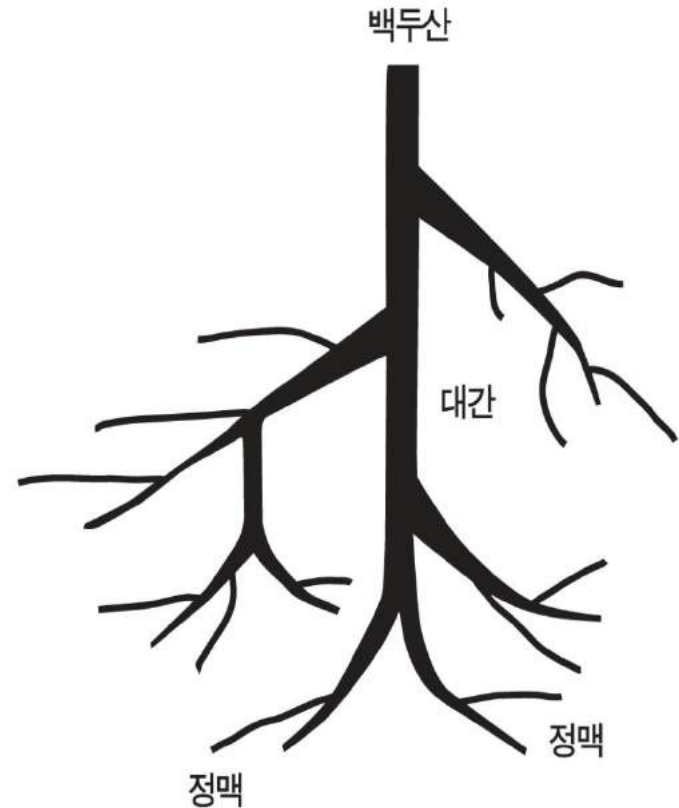
離有數流而混為一河而散為數川者有兩川勢敵既合而並流數里仍分二川者有水性勁弱不同
清濁互異絕流各出竟不相通者說異亦不可名狀

땅, 산, 물, 그리고 길

산

山主分而脈本同

산은 본디
하나의 뿌리로부터
수없이 갈라져
나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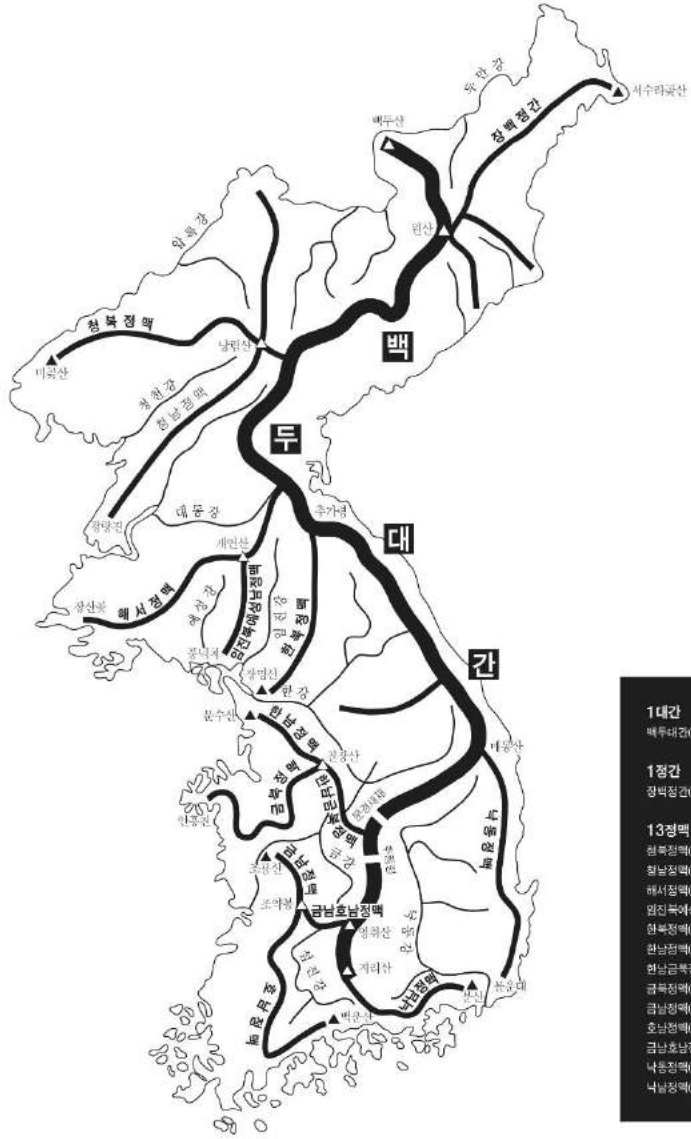
땅, 산, 물, 그리고 길

慶忠 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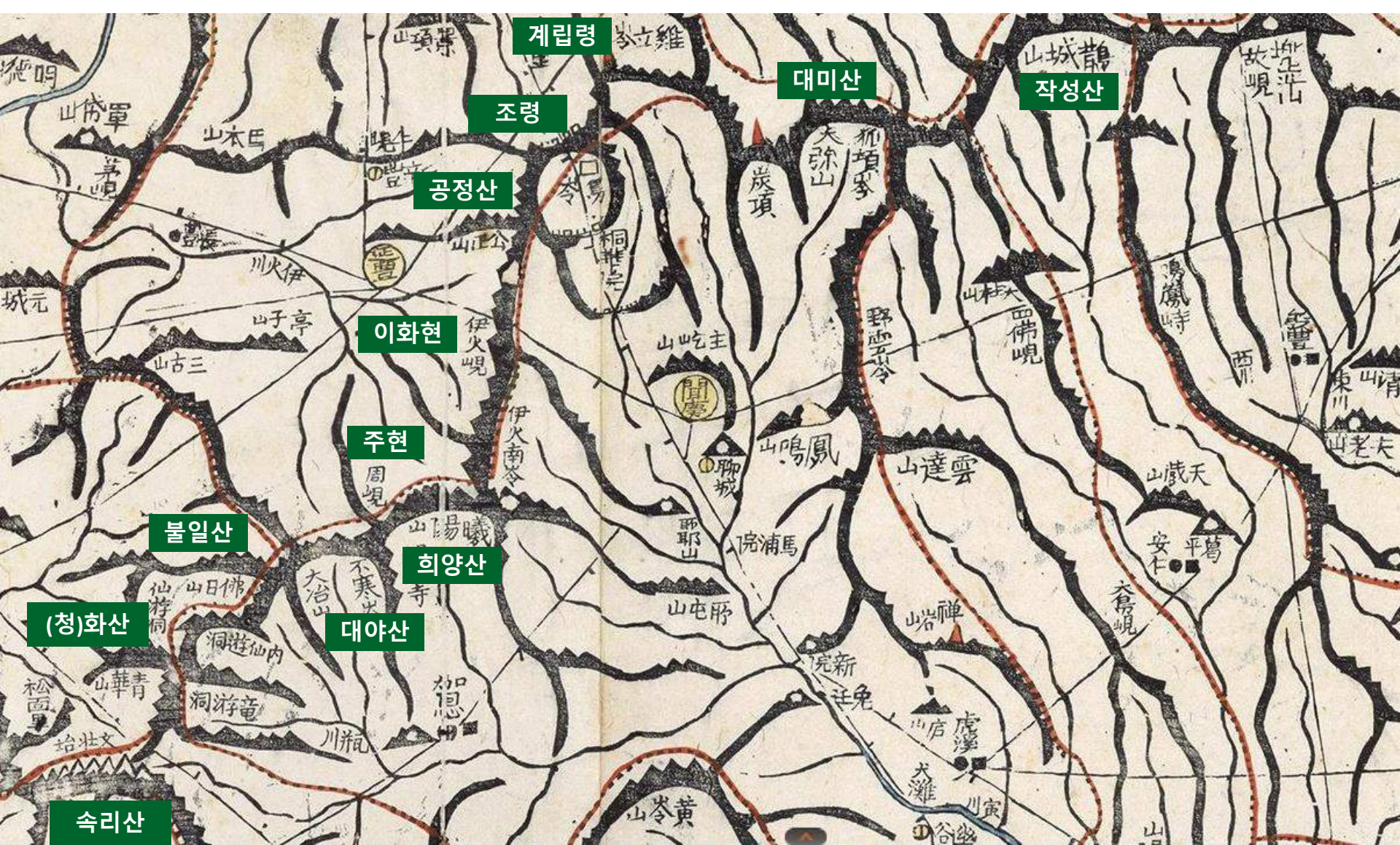
仁同 咸陽 善山 開寧 星州治 永同治 黃澗 茂朱治 晉州 居昌 知禮治 雲峰治

白頭大幹			
柳峙 見上二十 九頁	女院峙 雲峰治在 晉州西二 百里咸陽 南四十里 山清西南	智異山 白頭大幹 止於智異 白鷲嶺以 下則爲傍 支故今作 南洛正脈	鷺嶺
龜山 東來 知禮治在 北二里	黃澗北十 里茂州治 在 南三里	香爐山	黃峙
都麼峙 西來 茂朱東五 一里南角 居昌北五 十里 永同南二 十五里 分二歧 十里	天摩山 沙邑峙 城隍山	城隍山	玉山
星州西二 十一里 在南九里	扶桑峴 開寧南三 十里仁同 北十里善 山南四十 三里	金鳥城	素谷山 玉女山 望晉山 八音山 千金山

山經表 白頭大幹



- 1대간**
백두대간(백두산-지리산)
- 1정간**
장박정(현신-서수리곳산)
- 13정맥**
청북정맥(남원산-미곡산)
황남정맥(남원산-광명산)
해서정맥(개연산-경신산)
임진북역성남정맥(개연산-풍역지)
함북정맥(추기령-장명산)
한남정맥(철등산-운수산)
한남금북정맥(속리산-물장산)
금남정맥(철등산-인흥산)
금남정맥(조약봉-조흥산)
호남정맥(조약봉-백운산)
금남호남정맥(영취산-조약봉)
낙동정맥(태봉산-물온대)
낙남정맥(지리산-문신)



계림령

대미산

작성산

조령

공정산

이화현

주현

불일산

히양산

대야산

(청)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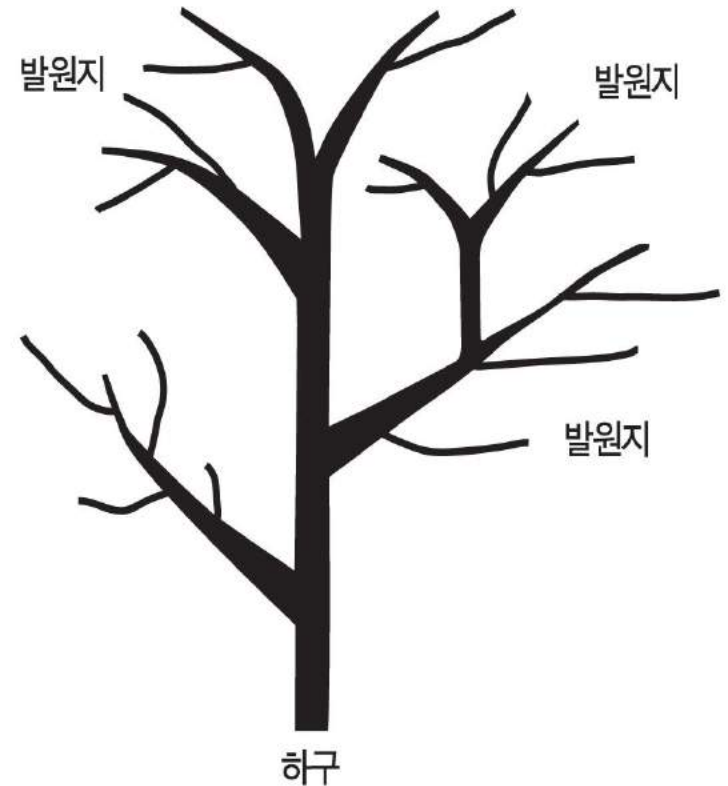
속리산

땅, 산, **물**, 그리고 길

물

水主合而源各異

물은 본디
다른 근원으로부터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땅, 산, 물, 그리고 길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낙동강발원지>

봉화 태백산 황지
문경 초점
순흥 소백산

世宗莊憲大王實錄卷第一百五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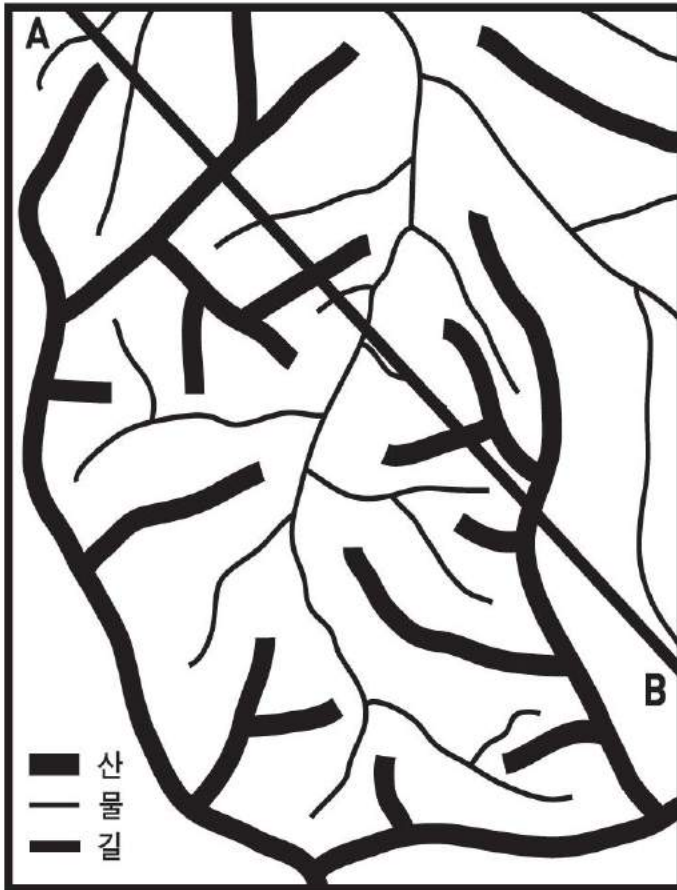
地理志

慶尚道在三韓時為辰韓至三國為新羅及高麗太祖并新羅百濟置東南道都部署
 後置司慶州成宗十四年乙未分境內為十道以尚州所管為領南道慶州全州所管
 為領東道晉州所管為山南道其後不知何時合為慶尚道今考國史睿宗元年丙戌
 稱慶尚晉州道明宗元年辛酉分為慶尚州道晉陝州道至十六年丙午以秘書丞
 李桂長為吏南海都部署使兼慶尚州道按察使毅慶尚道之名始於此神宗十四年甲
 子改為尚晉安東道其後又改為慶尚晉安道忠肅王元年甲寅元仁宗復為慶尚
 道本朝因之都觀察使置司尚州其地東南負大海西界智異山至城陰縣六十里北
 界竹嶺至開慶縣草站而大丘郡在道中央東西三百七十六里南北四百四十八里所管留
 守府一大都護府一牧三都護府六郡十五縣令六縣監三十四名山五主此在開太
 伯在奉智異州在晉四佛在尚伽在里大川三曰洛東江其源有三一出奉化縣北木
 伯山黃池一出開慶縣北草站一出順興小白山合流至尚州為洛東江吾山為餘次
 尼津仁閭為溟津星州為東安津加利縣為茂溪津至草溪合陝川南江之流為甘

땅, 산, 물, 그리고 **길**

路

길이
산을 만나면
고개요,
물을 만나면
나루이다.



우리나라의 옛길 – 땅, 산, 물, 그리고 **길**

옛 길 = **고개 + 나무**

고속도로 = **터널 + 다리**

우리나라의 옛길 – 길과 용어

□) ≅ □

| (□) ≅ ° ∪ □ ™ ∠ □ □ □ ∃ □ 8

⊗ (□) ≅ □ π (∃ □) □ ™ ∠ □ □ □ □ ∴

⊗ (□) □ ≠ (∃ ⊃) ∴ □ □ ℵ □ □ □ □ □ 8

⊗ (Σ) □ ≠ (Π □

∴ (|) □ ≠ (8 □ □ □ □ □ □ □ □ □ ≅ 8

□ □ ° ← ↗ □

∴ 8, ◇ ⊕, ← □ 8, ∃ □ 8, ◇ / 8, ℵ □ 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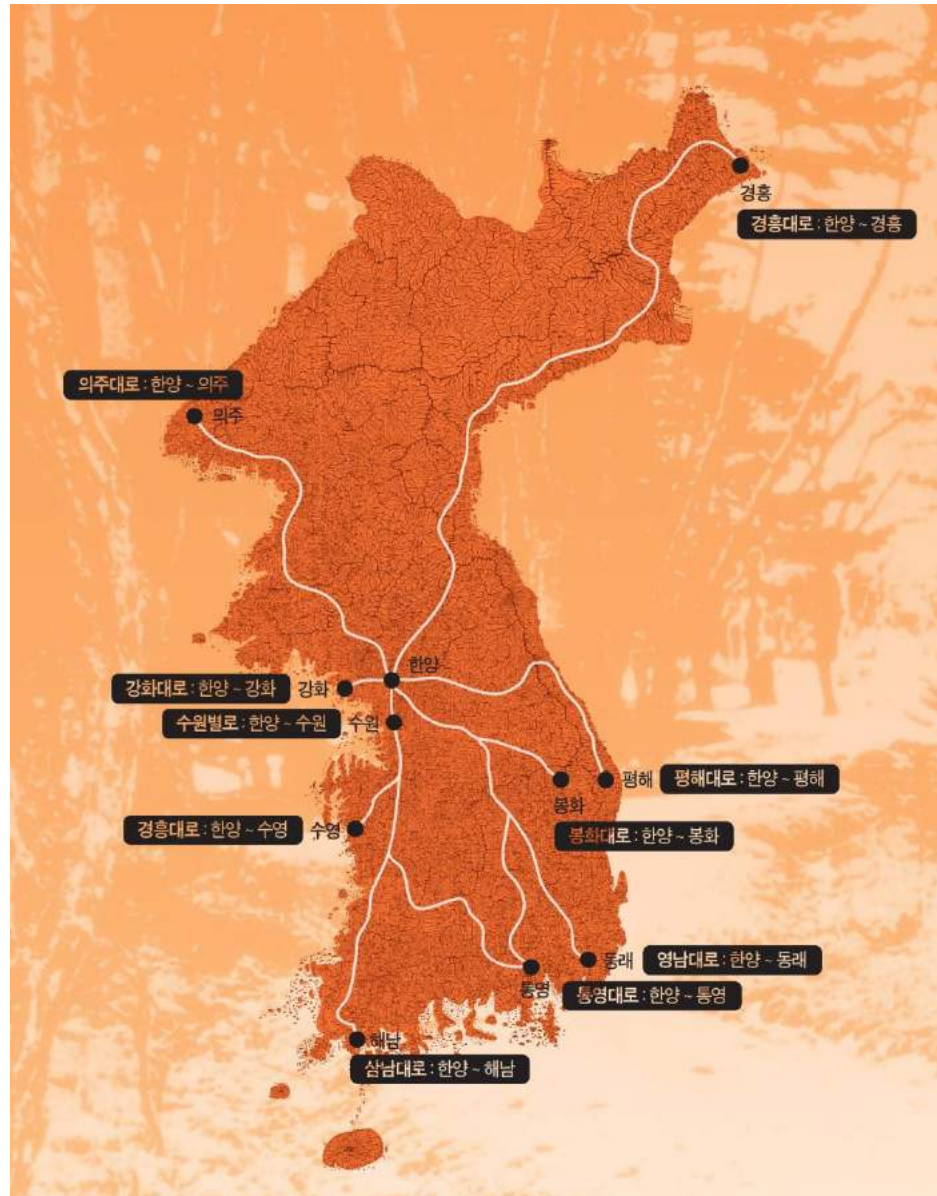
□ □ × □

ροαδ, στρεετ, απενυε, ωαψ, πατη, λανε, τραιλ, αλλεψ

우리나라의 옛길 - 조선시대 전국 도로망



우리나라의 옛길 – 조선시대 전국 도로망



우리나라의 옛길 – 조선시대 전국 도로망

노선번호	증보문헌비고 (1903-1906)	도로고 (신경준, 1770)	대동지지 (김정호, 1861-1866 사이)	비고
제1로	서울 ~ 의주	①서울 ~ 창성	①서울 ~ 의주	
제2로	서울 ~ 서수라	②서울 ~ 삼수	②서울 ~ 경흥	
제3로	서울 ~ 평해	③서울 ~ 정선	③서울 ~ 평해	
제4로	서울 ~ 부산	④서울 ~ 기장	④서울 ~ 동래	문경 통과
제5로	서울 ~ 통영		⑩서울 ~ 통영	문경 통과
제6로	서울 ~ 통영		⑧서울 ~ 남해	
제7로	서울 ~ 제주	⑤서울 ~ 남해 ~ 제주	⑦서울 ~ 수원	
제8로	서울 ~ 충청수영		⑨서울 ~ 충청수영	
제9로	서울 ~ 강화	⑥서울 ~ 교동	⑥서울 ~ 강화	
제10로			⑤서울 ~ 봉화	

<문헌에 따른 조선시대 간선도로망>

서울(한양)-동래(부산) 간 노정

경상충청대로(慶尙忠淸大路)', '경상대로(慶尙大路)'
'동남지동래사대로(東南至東來四大路)'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주요 노정은 서울-한강-판교-용인-양지-광암-
달내(達川)-충주-조령-문경-유곡역(幽谷驛)-
낙원역(洛原驛)-낙동진(洛東津)-대구-청도-밀양-
황산역(黃山驛)-양산-동래-부산이다. 이 노정 중
조령에서 유곡역 까지가 현재 문경이 포함된 구간이다.

監營中營

漆谷十里 京六百五十里 東河陽六十五里 西
 城 琴湖江十里 夏冬橋 天邱十里 京六百七十里
 星州八十里 西風六十里 高靈八十里 俱渡洛東 梧桐院
 江 西南玄風六十里 南昌寧一百里 京七百四
 三十里 八助領二十里 清道二十里 十里 北
 慶山五十里 又慈仁四十五里 西昌寧五十里 一
 西北玄風八十里 西南靈山七十里 越東慶州一
 百七 榆川驛四十里 密陽三十里 京八百十里
 十里 東產陽一百十里 西業昌寧百里 西靈山七
 凌路 耳倉十里 岐 無訖驛二十里 鵲遷十里
 東江 內浦驛十里 黃山驛二十里 察訪本驛 直
 棧道 危險 梁山二十里 北葯山九十里 又彥陽
 至沙背也 峴 梁山二十里 京九百里 岐 又彥陽
 三十里 捷路

左水營

六十里 西金海 沙背也 峴二十里 蘇山驛
 六十里 渡洛東江
 十里 在扶金城 東萊二十里 京九百五十里 南
 山浦鎮二十里 西南多大浦鎮五十里 南
 毛浦鎮二十五里 又開雲浦鎮三十里 南包伊
 浦鎮十三里 西南
 西平浦鎮四十五里
 直谷 泉洞店二十里 泉溪 長水
 於里二十里 陽城十里 京一百五十里 西南
 澤山四十里 南 安城二十里 京一百七十里 西南
 稷山三十里 西平澤四十里 南山四十里 西南
 里鎮川五十里 南將校時三十五里 木川三十
 里五

守禦後營

陣村 南 見二十 分行驛十里 行山十里 京八
 九之六行

大東地志 程里

右三邑並在洛 東江之西間路 漏浦四十里 上浦津四十里

漆原三十里 京七百九十里 龜山鎮七十里 海邊於峴十里

咸安二十里 京八百二十里 咸安四十里 自漏浦至道興障

五十里 西晉州八十里 大峴二十五里 鎮海

十五里 京八百六十里 又泗川一百里 背

屯驛三十里 固城三十里 京九百二十里 西

川六十里 東南村堡三十里 北晉州九十里 又泗

浦鎮並六十里 西南舊屯非浦堡四十五里 又

七十里 邱墟驛三十里 統營二十里 京九

里 見乃梁二十里 統虞候留防 自固城 永

登浦鎮十里 津越 布洞峴二十里 巨濟十里 一

千三十里 東業助羅浦鎮四十里 又玉浦鎮三

十里 東知世浦鎮四十里 南加背梁鎮二

里 東南粟浦堡二十里 開寧三十里 京五百五十里

○安谷驛 南見三十五行 金山 金泉驛三十里

三十里 東善山三十里 仁同六十里 由金山秋風嶽則非

知禮四十里 京六百二十里 東南高靈一百里 捷路

○西北茂朱 竹谷三十里 牛頭峴十五里

新倉店十五里 居昌三十里 京七百十里 東

○東南陝川七十里 南山 望峙二十五里

清九十里 西長水九十里 京七百五十里 自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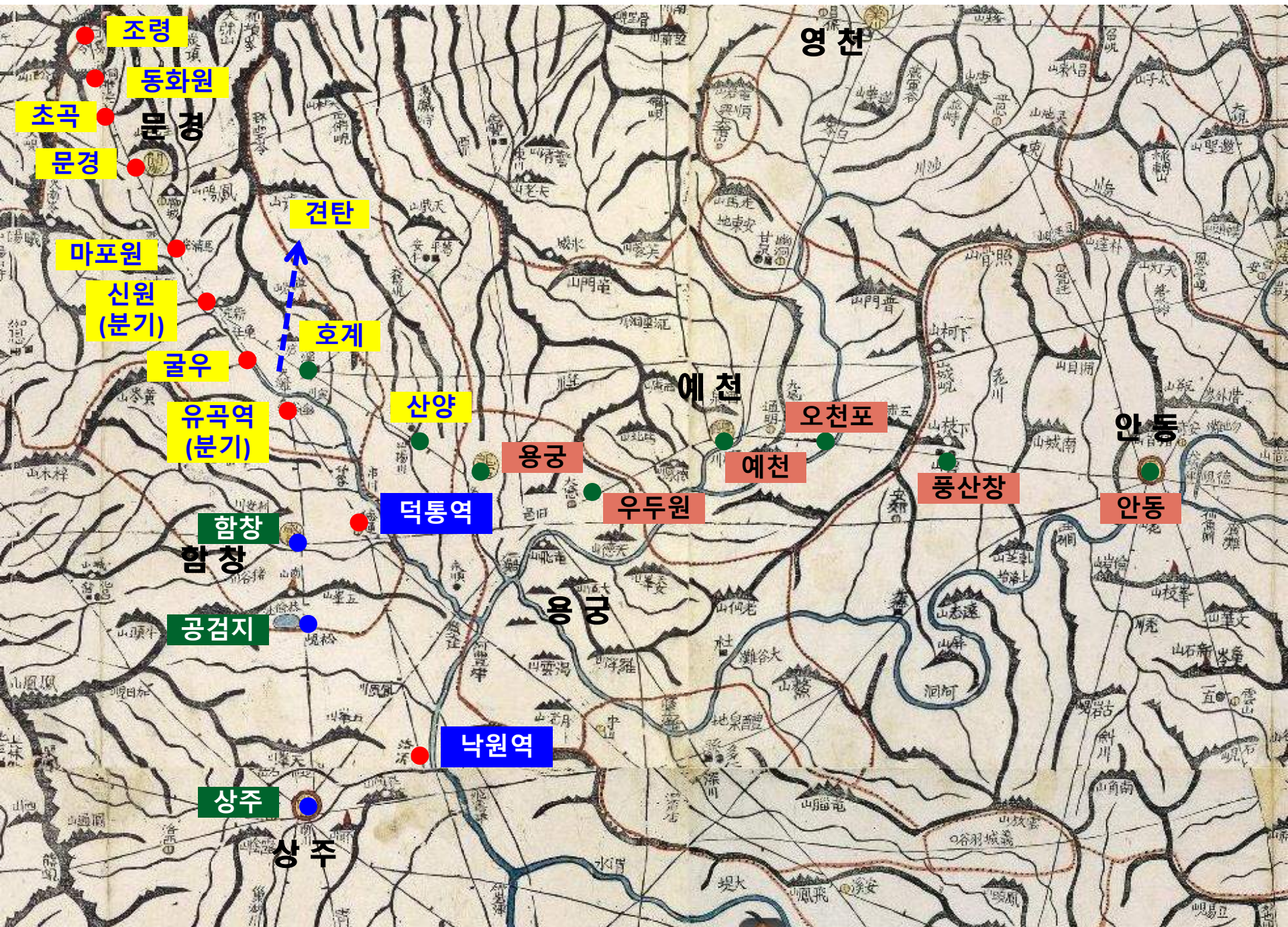
尋真川十三里 安義二里 由長水則距京七百

里 西北長水六十里 德裕峙至茂朱百四十里



진 위
(평택)





조령
동화원
초곡
문경

마포원
신원 (분기)
글우
유곡역 (분기)
견탄
호계

함창
함창
공검지

상주
상주

산양
용궁
덕통역
낙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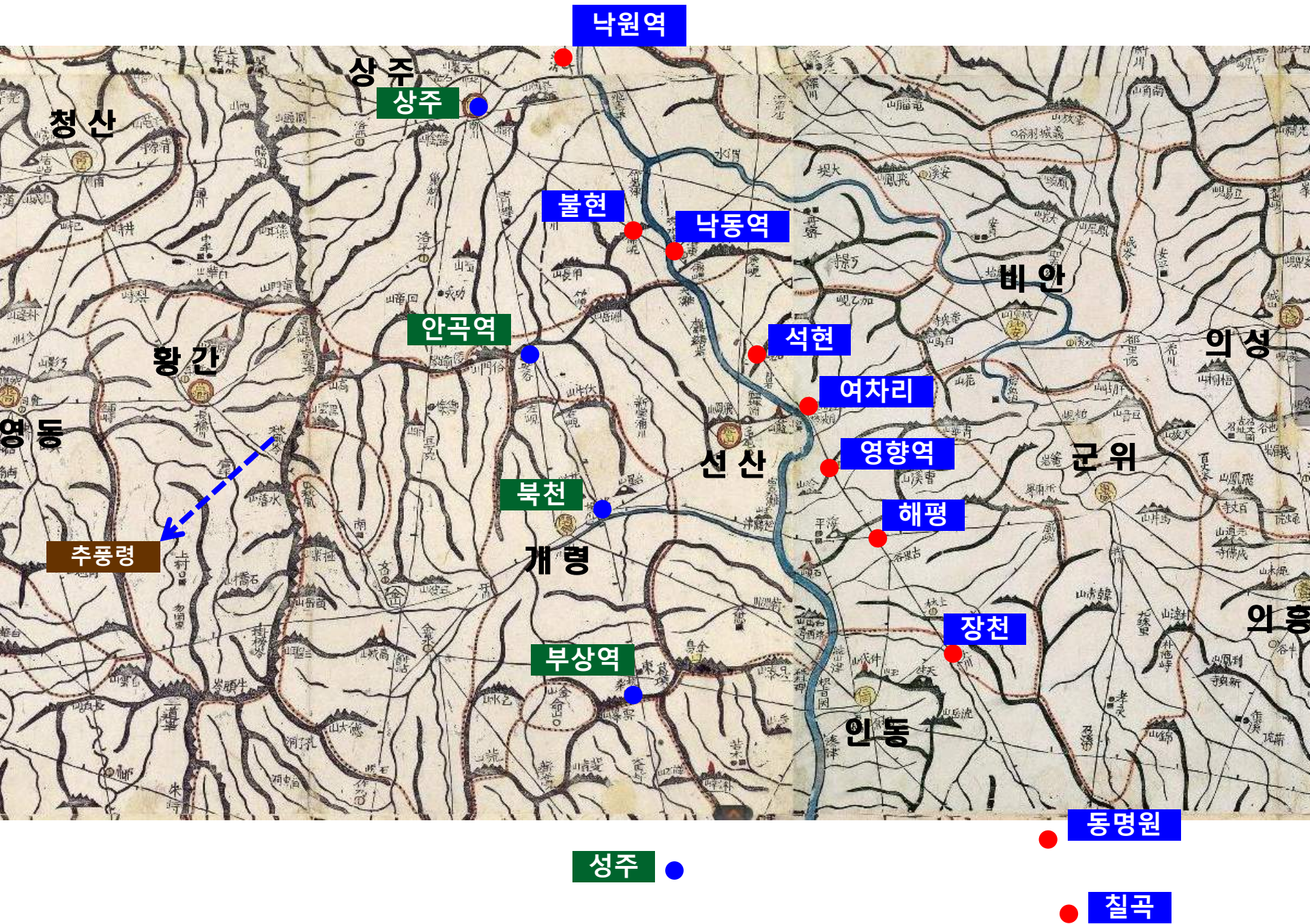
예천
우두원

영천

오천포
예천

풍산창

안동
안동



낙원역

상주

불현

낙동역

안곡역

석현

비안

의성

황간

여차리

영향역

군위

추풍령

북천

해평

개령

장천

의흥

부상역

인동

동명원

성주

칠곡

驛道 체계

역도(驛道)란 도로의 원근이나 교통로의 중요도에 따라 여러 개의 역(驛)을 묶어 역승(驛丞) 또는 찰방(察訪)의 지휘, 감독 아래 순행 고찰하는 행정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역도체계(본역-속역)를 토대로 조선시대의 역로(驛路)가 형성되었다.(41역도 524속역)

- 역(驛)이 하는 일 -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교통 통신기관
 - 사신(使臣)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
 - 변방의 긴급한 군사정보 전달
 - 공공물자 수송
 -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 전달
 - 숙식 제공
 - 역마(驛馬) 제공

우리나라의 옛길 – 고려시대 역도체계

<역제확립>

개경 중심의 도로망 구축
22驛道 체제 525驛 관할

<고려시대 경상도지역 역도>

- @ 경주도(慶州道) : 경주 중심
관할 역은 23개
- @ 김주도(金州道) : 김해 중심
관할 역은 31개
- @ 상주도(尙州道) : 상주 중심
관할 역은 25개
- @ 경산부도(京山府道) : 성주 중심
관할 역은 25개

◆ 문경 지역 역은 상주도



고려사(1451년) 병지/참역(站驛) - 상주도

<p>省乙峴 榆川 西之買田<small>清道</small>竝山<small>玄風</small>一門</p> <p>挂溫井<small>靈山</small>梁州驛 黃山 源浦 渭川<small>梁州</small></p> <p>蘇山<small>東萊</small>阿等良 機長驛 屈火 肝谷<small>蔚州</small></p> <p>德川<small>陽彥</small></p>	<p>尚州道掌二十五 幽谷<small>遼</small> 洛原 洛泉<small>尚州</small></p>	<p>靑路 鉄波<small>義城</small>智保<small>龍宮</small>通明<small>甫</small>德通<small>昌</small>甕泉</p>	<p>安基<small>安東</small>安郊<small>山豐</small> 聊城<small>慶</small>守山<small>仁多</small>雙溪<small>比</small>安</p>	<p>溪<small>安</small>琴曹 通山 松蹄<small>臨</small>連鄉 仇旂<small>善州</small></p>	<p>牛谷<small>義興</small>上林<small>海平</small>曹溪<small>孝令</small>文居 和目<small>安德</small></p>	<p>上高麗集卷之十一 十一</p>	<p>京山府道掌二十五 安堰 踏溪<small>京山</small>安林</p>	<p>高水鄉 綠情<small>八音</small>火<small>花</small>茂淇<small>加</small>金泉<small>金山</small>屬</p>	<p>溪<small>黃</small>長谷<small>禮</small>順陽<small>山陽</small>土現<small>利</small>利仁<small>安</small>增若<small>管</small></p>	<p>作乃<small>禮</small>洛陽 洛山<small>尚州</small>會同<small>永</small>猿岩 舍林</p>	<p>兼秋風<small>海</small>常平<small>中</small>安谷<small>善州</small>長寧<small>化</small>扶桑<small>開</small></p>	<p>分各驛丁戶爲六科以金郊臨波金崑寶山</p>	<p>安城龍泉島嶺洞仙高原生陽懷蛟林原爲</p>	<p>一科以安定迎德通寧雲岳興林與郊長若</p>	<p>安信新安雲興林畔通陽豐陽興化鎮驛爲</p>
---	--	--	--	--	--	--------------------	--	---	---	--	---	--------------------------	--------------------------	--------------------------	--------------------------

년 세조 3년 7월 17일)

"..... 그 나머지 여러 도의 여러 역(驛)에는 이전(吏典)으로서 임명하므로, 비단 사객(使客)을 아첨하여 대접할 뿐만 아니라, 내왕하는 사람들까지도 또한 직질(職秩)이 낮다고 하여 침요(侵擾)하여 폐단을 일으키니, 청컨대 역승(驛丞)을 파(罷)하고 찰방(察訪)을 두도록 하소서."

可興京畿安平新津楊花阿川留春吾川慶安奉安楸賓德豐
平丘等驛彫弊為甚宜革驛丞以右道水站判官兼差察訪或
用驛馬或用站船隨宜轉輸其餘諸道諸驛以吏典差任非惟
諂待使客來往之人亦以為秩卑侵擾作弊請罷丞置察訪
從之○戶曹據平安道觀察使啓本啓義州狄島倉庫洞貴
林島軍大洞馬山平等處土田曾許傍近居民自耕自癸丑年
以後因野人事變禁耕然馬山平與造山平相接皆在狄江之
內賊不能猝至且其守護之暇今移馬山請令本道觀察使先
給貧民具結負數移文本曹以憑後考 從之○司憲府啓申
自衡嬖妓楚腰輕令管家事疎外正妻請依律科罪 命只收
職牒妓配遠方憲府又啓柳孝班結趙智威及若全用詐謀招
致良女英今于私婢金德家逼而私之罪應處絞以功臣 命
減一等贖其杖○己卯兵曹啓七番甲士本九千四百五十人
今為十一番京甲士五千二百五十兩界甲士四千二百依舊
例更四朔番上遞兒則每一番京甲士司直四百六十九內七

2년 세조 8년 8월 5일)

에서 아뢰기를,
저 제도(諸道)의 참·역(站驛)을 혹은 역승(驛)하고 각각 그 부근에 합하여 하나의 길[道]에 찰방(察訪)을 두었으나, 관할하는 역(驛)이 멀리 떨어져서 찰방이 두루 살피기가 어려우(驛路)가 조잔(凋殘)하니, 이제 다시 마감(磨勘)·중(中)·소(小)의 역로 및 원근(遠近)을 나누는 역승을 각 역로에 차견(差遣)하여 1찰방 1명을 더 두게 하소서. 삼가 뒤에 갖추 아뢰

幽谷道察訪

沙斤驛蹄閑驛正谷驛臨水驛有隣驛新興驛小

南驛平沙驛正守驛安澗驛新安驛碧溪驛栗院驛馬田驛橫

甫驛已上十五驛稱沙斤道驛丞召材驛富多驛永昌驛文和

驛平居驛德新驛完沙驛良浦驛官栗驛東溪驛松道驛丘墟

驛背屯驛烏壤驛常令驛知南驛已上十六驛稱台村道驛永

自如驛近珠驛良民驛新豐驛報平驛春公驛巴水赤項驛省

法驛南驛德山驛金谷驛大山驛已上十三驛稱自如道驛丞

黃山驛輪山驛渭川驛蘇山驛休山驛新明驛阿月驛肝谷驛

堀火驛富平驛德泉驛已上十一驛稱黃山道驛丞松羅驛南

驛酒登驛柄谷驛寧陽驛望昌驛大松驛和目驛文居驛青雲

驛峯山驛陸驛角山驛已上十三驛稱松羅道驛丞江原道銀

溪驛新安驛大昌驛瑞雲驛生昌驛玉洞驛乾川驛龍津驛山

陽驛原川驛方川驛舍春驛水仁驛馬奴驛富林驛嵐校驛林

川驛已上十七驛稱銀溪道察訪保安驛仁嵐驛富昌驛安保

驛原昌驛連峯驛泉甘驛蒼峯驛葛豐驛烏原驛安興驛由原

三	裨	積	四	洞	連	仇	田	楸	梁	綠	道	海	長	加	無	佐	駒	驛	良
七	川	城	眞	縣	谷	谷	貧	文	楊	蜀	門	足	川	極	贊	興	則	寸	
七	喬	果	抱	砥	監	甘	白	雙	奉	安	驛	平	同	菁	康	分	金	樂	道
一	桐	川	川	平	十	泉	冬	樹	安	奇	則	立	化	好	福	行	嶺	生	場
	延	長	惟	平	日	金	驛	成	泉	令	水	用	安	坎	丹	道	田	原	會
四	春	命	鳩	川	新	蹄	則	歡	南	泉	山	安	富	原	月	屬	民	巖	同
十	縣	金	丹	敬	廣	新	道	安	吾	長	黃	可	新	仁	驛	連	舍	新	化
七	監	沙	平	天	程	恩	屬	陰	賜	林	江	興	豐	山	則	原	林	興	仁
四	里	阿	蜀	寧	居	松	路	驛	草	作	川	勸	村	東	林	安	則	金	林
	押	火	驛	陽	和	蹄	雲	則	安	乃	琴	賓	高	安	金	彦	秋	泉	上
	梁	毛	則	長	瞳	青	山	讖	奇	長	川	星	平	入	陽	茂	豐	道	洛
	牛	良	青	水	角	雲	琴	破	道	谷	文	奇	楊	鎮	扶	溪	瀆	蜀	西
	谷	沙	通	道	山	文	召	青	蜀	官	山	楊	原	茂	雙	安	溪	巖	長

林上
洛平
洛西
谷長

영남대로의 허브 - 유곡역

소재지	세종실록지리지	경국대전	유곡역지	현소재지
문경(聞慶)	유곡	유곡	유곡	문경시 유곡동
"	요성	요성	요성	문경시 문경읍 요성리
함창(咸昌)	덕통	덕통	덕통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상주(尙州)	낙양	낙양	낙양	상주시 낙양동
"	낙동	낙동	낙동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	낙원	낙원	낙원	상주시 낙상동
"	낙서	낙서	낙서	상주시 내서면 낙서리
"	장림	장림	장림	상주시 화서면 울림리
"	청리신역			상주시 청리면
"	공성신역			상주시 공성면
"	상평	낙평	낙평	상주시 내서면 청하리
선산(善山)	구미	구미	구미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	영향	연향	연향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
"	안곡	안곡	안곡	구미시 무을면 안곡리
"	상림	상림	상림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비안(比安)	쌍계	쌍계	쌍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	안계	안계	안계	의성군 안계면
예천(醴泉)	수산	수산	수산	예천군 풍양면 고산리
용궁(龍宮)	용궁신역	대은	대은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	지보	지보	지보	예천군 지보면
군위(軍威)	소계	소계	소계	군위군 효령면 화계리

<유곡역과 18개 속역>



창락역

괴산

풍기

영천

연풍

문경

요성역

유곡역

용궁

에천

덕통역

대은역

함창

보은

장림역

낙원역

수산역

상주

낙서역

낙양역

안계역

정산

낙평역

낙동역

비안

영동

황간

안곡역

선산

영향역

쌍계역

영동

황간

금산

개령

구미역

상림역

군위

김천역

인동

소계역

1890년 유곡도
찰방 교지

光緒



正月

日

馨

林宗秀為通訓
大夫無幽谷道
察訪者

역(驛) 사람들

<찰방(察訪)>

역도(驛道)를 관리하는 종6품의 외직 문관벼슬

<역리(驛吏)>

역(驛)에 소속되어 신역(身役)의 하나인 역의 제반 업무를 담당 하던
아전(衙前) - 세습됨

<역노비(驛奴婢)>

역에서 입마(立馬 : 각 역에서 말을 길러 공용으로 쓰기 위해 바치던 일) ·
태운(馱運 : 말 등에 짐을 실어서 나르던 일) · 잡역(雜役) 등의 노역(勞役)과
신공(身貢, 납공노비)을 제공하는 일을 함

형지안(形止案)

- ◆ 형지기(形止記) 라고도 한다. 형지는 시대·문헌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사실의 전말’에 대한 기록 혹은 그림(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제산릉형지안(諸山陵形止案), 적상산성형지안(赤裳山城形止案) 등
- ◆ 조선시대 공노비 대장(다음백과사전)
 - 노비형지안(奴婢形止案)
- ◆ 역(驛) 형지안 : 역인(驛人) 장부

3년마다 작성하는데 마치 호적대장과 유사

乾隆十二年十月日沙斤道形止案

咸陽仇火沙斤驛

辛酉故

戶驛史曹成道年陸拾父承邦祖興俊曹祖義龍外祖白時亮住咸陽沙斤

甲子故

戶驛史曹漢挺年肆拾叁父成國祖承邦曾祖興俊外祖李忠住咸陽沙斤

戶驛史曹學天年陸拾玖父元邦祖興俊曾祖義龍外祖金興雲住咸陽沙斤

率同生年學厚石年伍拾四祖上同

士子故

率同生年學善年肆拾柒四祖上同

率子漢倍年拾壹父學天

率侄于漢旭年貳拾玖父學頤外祖朴己士

解由

一驛史奴婢形止案冊八十二卷

一各等重記六十卷

一前後可考俵音立案查出推給頤下事目及其餘日後可考文書十五張并付

一本驛所屬長林驛奴水丁娶良妻所生仁同居婢論介等謀返驛後為有去乙丹陽官

决得立案一張

一本驛所屬安富驛奴張北伊娶私賤所生升水等槐山官决得立案一張

一新逆時雜物謄錄冊一

一兩具謄錄冊一

一本各驛馬位田苗案冊一

一式年馬位田案及馬籍案冊二十三卷

一本各驛馬位詳定冊一

지형도근사
止形道斤沙
(1747년)

사근도형지안 서지적 사항

- ◆ 명 칭 : 사근도형지안(沙斤道形止案)
- ◆ 년 도 : 건륭(乾隆) 20년(1747년, 영조 23년)
- ◆ 작성자 : 사근도찰방 이인상(李麟祥, 1710-1760)
- ◆ 크 기 : 가로 61cm, 세로 63cm
- ◆ 형 식 : 필사본, 사주단변(四周單邊), 계선(界線) 있음
(30행, 행간격 1.8cm ~ 2cm)
표제 없음(표지는 해체하여 다시 편철한 것으로 추정)
98장, 각 장마다 관인(찰방관인으로 추정) 날인

乾隆十二年十月日沙斤道形止案

咸陽仇火沙斤驛

戶驛吏曹成道年陸拾父承邦祖興俊苗

戶驛吏曹漢挺年肆拾叁父成國祖承邦

戶驛吏曹學天年陸拾玖父元邦祖興俊曹

舉同生弟學石年伍拾四祖上同

保朴夢大年貳拾陸父祖不知住咸

奉直即行沙斤道察訪李

奉直即行沙斤道察訪李





吏)

역

상당 하던

<역리(驛吏)>

역(驛)에 소속되어
아전(衙前) - 세습

입역역리(入役驛吏)

戶驛吏曹汝直年陸拾父時健祖廷昌曾祖應海外祖朴莫男任咸陽少尹 甲子故

率同生牙汝贊年伍拾肆四祖上同

率子天渭年叁拾捌父汝直外祖趙晉達 乙丑故

係朴次丁同驛曹每奉係去

率二子天旭年貳拾陸父外祖上同 癸亥故

率孫子得禮年肆父天旭外祖鄭道亨

率孫子寧澤年拾壹父天渭 壬子故

率孫子再奉年拾肆父上同外祖金斗先

係朴次丁年肆拾柒父德承任咸陽 加視

率孫子再彥年玖父上同

率孫子命臣年肆父外祖上同

率任子漢過年叁拾貳父汝贊外祖金淡金 加現

係朴善興年肆拾貳父夫知任咸陽

率任子漢澤年貳拾陸父外祖上同

率任子竹古治年貳拾叁父外祖上同

率任子漢治年拾柒父外祖上同 庚申故

率任子龍孫年捌父外祖上同

同儉節制使 致謙

戶驛吏金夏昂年陸拾肆父淡金祖春南曾祖彥忠外祖柳奉任河東粟元

老徐

平同生弟處昂年伍拾玖四祖上同

病瘕

平同生弟高昂年伍拾柒四祖上同

平同生弟以善年伍拾貳四祖上同

平子尚太年貳拾玖父夏昂外祖李億萬

平子聖才年貳拾捌父外祖上同

平孫子毛吉年貳父聖才

加現

平子武才年貳拾叁父外祖上同

平子武太年玖父外祖上同

壬子故

平子太楚年拾肆父外祖上同

平侄子尚秋年叁拾玖父處昂外祖徐石山

登成均進士

平侄子奉三年叁拾陸父外祖上同

卑)

驛卒降奴秩

치던 일) .
역(勞役)과

戶奴永達年柒拾貳父良人益仅母良女介王祖致元曾祖巨立外祖尹永录 已卯故

戶奴貴業年捌拾貳父驛奴周業母良女貴夫祖已順曾祖德東外祖崔哲東 己未逃亡

戶奴主業年壹百伍父良人周益母助是二祖不知 已卯逃亡

率子奴貴卜年柒拾貳父驛奴周業母良女貴化 己卯逃亡

戶奴從金年伍拾玖父驛奴應立母良女謂朗祖應生曾祖應風外祖不知佳宜寧

率同生奴具壹年伍拾捌父母上同

率同生奴六元年伍拾貳父母上同

戶奴准業年陸拾叁父驛奴自男祖金卜曾祖亦說外祖不知佳威安 己丑逃亡

戶奴自會年捌拾叁父良人金卜母驛女貴令祖志卜曾祖卜只外祖不知佳威安 己丑逃亡

率子奴仁建年陸拾叁父驛奴自會母良女元化 己丑逃亡 率子奴仁石年肆拾伍父母上全 己丑逃亡

嫁私賤所生秩

戶奴尚氏年伍拾肆父驛奴戒明母驛女代春祖漢風曾祖漢連外祖金銀山佳威湯沙斤 甲寅故

率女婢連升年肆拾柒父驛奴尚氏母良女南德 加現

率子奴漢奉年叁拾陸父母上全 保徐萬翁 軍保定

率子奴漢貴年貳拾陸父母上全 保鄭太石 軍保定

率孫奴萬世年貳母驛婢連升 加現 率孫奴從萬年肆父驛奴漢奉外祖吳岩田

率孫婢日升年叁父驛奴漢貴 加現

戶奴進元年叁拾伍父驛奴仅男母私婢青令祖武臣曾祖百令外祖不知佳雲峯 乙未故

率同生奴進仅年叁拾伍父母上全佳威湯休知里

率侄奴先奉年拾捌父驛奴進仅 率侄婢亦德年拾柒父上全

戶婢禮良年肆拾捌父驛奴時萬母良女成母祖日曾祖百令外祖金風連佳威湯馬日

率孫婢奉每年捌父驛奴完石

戶奴好成年伍拾肆父驛奴周望母良女仁揚祖云邦曾祖德市外祖金太興佳威湯沙斤 病痰

率同生奴丁丑年叁拾柒父母祖上同 壬子故

率同生婢天連年肆拾柒父母祖上同

率同生奴庚辰年肆拾伍父母祖上同

保金尚太平貳拾叁父仁白佳威湯

率同生婢仰年叁拾 父母祖上同

率侄奴厚祖年拾壹父驛奴庚辰

率侄奴厚著年捌父上同 率侄奴青文年貳拾母驛婢升升 加現

已上元人丁壹千貳百貳拾貳口以 吏捌百捌拾六口內 老徐叁壹壹口
物故壹百陸拾貳口內 還生氣口 逃三肆拾口內 還實拾捌口

日守金望起年肆拾壹父外祖不知住咸陽沙介
日守朴守彭年肆拾陸父貴氏祖承伊曾祖明山外祖金慶金在咸陽德各

保朴太萬年貳拾伍父守彭在咸陽

已上元人丁壹千貳百貳拾貳口以 吏捌百捌拾六口內 老徐叁壹壹口

物故壹百陸拾貳口內 還生氣口 逃三肆拾口內 還實拾捌口 病疥柒口

軍保頃叁口 冒人頃叁口 產名叁口 思疾頃壹口 私奴頃壹口

良人頃肆口丁卯還汰拾口前弱肆拾玖口 加現弱叁拾陸口 加現壯捌口

實陸百肆拾壹口 驛卒降奴及嫁私賤所生奴驛奴並貳百肆口內 老徐柒口

物故貳拾伍口 逃三伍拾陸口內 還實拾壹口 病疥氣口 加現壯肆口

虛名叁口 風病頃壹口 前弱伍口 加現弱肆口 加現壯肆口

實壹百拾柒口 婢壹百貳拾叁口內 老徐貳口 逃三貳拾捌口內 還實拾壹口 物故捌口 私婢頃壹口

虛名頃肆口 病疥壹口 前弱貳口 加現弱柒口 加現壯壹口 保人捌拾陸口

安陰仇火臨水驛

戶驛吏襄明立年壹百玖父明東祖莫東曾祖長外祖崔柒每 辛亥逃三

戶驛吏襄者下沙里年伍拾貳父承仁祖貴生中祖明 外祖趙順鶴住安陰 壬子故

率子者斤金年拾捌父者下沙里外祖金守南 丙午故

率子者斤老 年拾肆父外祖上同 丙午故

率任子妻者下沙里年肆拾肆父日龍祖承南曾祖不知外祖襄承一區安陰 久遠逃亡

戶驛吏襄善發年陸拾伍父以達祖貴生曾祖明生外祖金守龍住安陰臨水 老徐

率同生弟業奉年陸拾壹四祖上同

率同生弟今先年肆拾玖四祖上同

率子聖占年叁拾捌父善發外祖河之京

保鄭汝白年叁拾陸父祖不知住安陰

率侄子業先年拾柒父業奉外祖朴善日 戊申故

率侄子武東年拾肆父外祖上同 己酉故

上)

保申叔伙年陸拾壹
 辛孫子大高只年拾壹父天光味
 辛孫子仲里同年伍父上同
 辛孫子明金年叁父上同
 加現
 戶驛史善善伊年陸拾捌父黃仁祖產生曾祖產外祖祖金借得佳順天德瑞
 辛子成清年叁拾伍父善伊外祖金斧甲
 辛子成介年貳拾肆父外祖上同
 戶驛史善先即年陸拾伍父海公祖黃日曾祖產外祖祖格佳順天德瑞
 辛同生骨元宗年伍拾貳四祖上同
 辛同生骨大高只年伍拾四祖上同
 辛同生骨茂有年叁拾捌四祖上同
 辛子先志年叁拾父先即外祖李仅申
 辛位子厄仁年貳拾壹父大高只外祖林山伊
 辛位子仁國年叁拾肆父澤龍外祖善海云
 辛位子仁年叁拾父外祖上同
 辛子小竹老林年貳拾拾父上同

吏叁千肆百陸拾口內

老除壹百柒口 物故柒百玖口內 還生肆口 逃亡貳百叁口內

還寢陸拾肆口

病廢叁拾柒口 單保叁口 虛名貳拾叁口 盲人頃玖口

愚疾壹口

良人頃伍口 竝頃壹口 丁卯是太伍拾貳口 以奴還降肆口

前弱貳百拾玖口

加現弱貳百拾捌口內 壯加拾捌口 實貳千叁百柒拾捌口

奴壹千壹百柒拾口內

老除貳拾伍口 物故壹百肆拾肆口 逃亡叁百貳口內

還安員陸拾口

病疥拾壹口 虛名拾貳口 風病肆口 盲人頃叁口

龍耳啞壹口

官奴頃壹口 丁卯是太拾陸口 以史降奴陸口 前弱肆拾

加現弱肆拾肆口

老除貳拾貳口 逃亡壹百玖口內 還實貳拾捌口 物故

參拾柒口

私婢肆口 良人肆口 病疥貳口 丁卯是太拾壹口

盲人頃壹口

官婢貳口 加現弱叁拾陸口 前弱叁拾口 良女還降壹口

加現壯叁口

實叁百貳拾壹口 物故壹口 逃亡壹口 實肆拾壹口

日守伍拾陸口內

老除拾叁口 物故壹口 逃亡壹口 實肆拾壹口

保人肆百叁拾伍口

今離頃叁百伍拾叁口 今加現叁百柒口 都合叁千肆百拾壹口

都已上元人丁伍千壹百柒拾伍口以

辛子奴爾已年貳拾壹父母上同
 辛女婢順月年叁拾肆父母上同
 辛孫婢順月年拾貳父驛奴萬周
 辛孫奴俊石年玖父上同
 日守孫德春年陸拾貳 老除
 日守金非准年陸拾貳 老除
 日守金少培年陸拾壹 老除
 日守孫奇亨年叁拾玖父德春祖道世曾祖山貴外祖不知往河東花開
 日守金順才年肆拾伍父少培祖慶男曾祖胡男外祖不知往河東花開
 保金順才年肆拾叁四祖上同往河東
 心土元人丁貳百捌拾肆口 史廣百伍拾肆口 老除拾口 物故肆拾壹口內 還生壹口
 逃亡玖口內 實肆拾口 實肆拾口 實肆拾口 實肆拾口 實肆拾口 實肆拾口 實肆拾口 實肆拾口 實肆拾口

검찰방이 감영에 첩보하는 일입니다. 본 역 소속 상주(尙州) 고을[仇火] 낙동역(洛東驛)의 역리 신세필(申世必)과 선산(善山) 고을 영향역(迎香驛)의 역리 박상기(朴尙己) 및 같은 고을 상림역(上林驛)의 역리 심걸아리(沈乞牙里)·이득세(李得世)·박봉이(朴奉伊)·박승주(朴承柱) 등이 연명하여 올린 등장(等狀) 내에 “저희의 선조가 본래 본 역에 속한 역리이어서 오래된 형지안 중에 대대로 등록되어 역역(驛役)을 담당한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산부에서 연고 없는 한민(閑民)으로 여겨 군역에 충정하고서 끝내 빼어주지 않으니 지극히 원통합니다. 이에 감히 한 목소리로 와서 하소연하노니 군역을 침범당하지 않도록 감영에 보고하여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역에 오래 보존중인 여러 식년의 형지안을 몇 차례 살펴보니 등장을 올린 박승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역리로 명백하게 실려 있으며 그들의 신공(身貢)도 매년 받아서 경삼역(京三驛)의 입거목(入居木)과 삼등마(三等馬)를 바꿀 때의 비용으로 보태었습니다. 선산부에서 역이 없는 한민으로 여겨 군역에 충정한 후 끝내 빼어주지 않으나 역인(驛人)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목(事目)에 어긋나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역을 지게 되는 것은 실로 매우 민망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고을에서 잇달아 이를 모방해서 한 역의 역인 모두에게 군역을 부과해도 누가 감히 어떻게 조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명을 전달하는 막중한 역역(驛役)을 보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와 같이 첩보하오니 감사께서는 잘 헤아려 위의 역리 박승주 등에게 배정한 군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취지로 선산부에 특별히 관(關)을 보내어 분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 과연 역에 속한 자가 맞다면 군역에 충정되는 것을 원통하다고 호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래된 호적대장과 형지안을 살펴서 군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취지를 배관(背關)으로 분부할 일이다.

(조윤주, 유곡록, 1737년 9월 11일)

사근도형지안의 가치

- ◆ 현전(現傳) 국내 유일의 형지안이다.
- ◆ 솔거인(率居人)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동거가족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 ◆ 역 마을의 신분변동 및 혼인관계를 알 수 있다.
- ◆ 신안역과 벽계역은 단성현 호적대장과 겹치는 부분이라서, 형지안과 호적대장의 비교연구가 가능하다.(이런 경우는 현재까지 처음)
- ◆ 역제사 중심의 역 연구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결국 역마을, 역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임

麻骨 站

樓高

院敢起動

學

驛

平溪 谷十

四遊

之仍驛盍吾乎北古詩階昨言公曉四遊
 速舊而卒先此手匠擇善手堂方是木斧其近山之木逸
 力修百匠此手匠擇善手堂方是木斧其近山之木逸
 不費也時兼善居憂咸昌營因事一過焉
 矣幽谷是
 不舒舍頽毀
 有疾足騎
 出而為察
 旅宿患其
 于今未有
 之始往來
 谷者乎幽
 生可咽喉乎
 此木轆於幽
 領之南六
 西長林各
 東仇旂雙十
 道屬驛十
 景提毫不
 回樓高膚
 水欄斑滿
 郡樓依疊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의 중수기에, “영의 남쪽 60
 여 주는 지역이 넓고 인구와 물산이 많은데, 그 수레와
 말들이 모두 유곡(幽谷)의 길로 모여들어서야 서울로 갈
 수 있고, 서울로부터 남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이 곳을 지
 나야 그 갈 곳으로 갈라져 가게 된다. 이 역을 사람에게
 비긴다면 곧 **영남의 목구멍**이라 하겠다. 목구멍에 병
 이 나면 음식을 통과시킬 수 없고, 음식이 통과하지 못하
 면 목숨을 부지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문경의 옛길 – 문경새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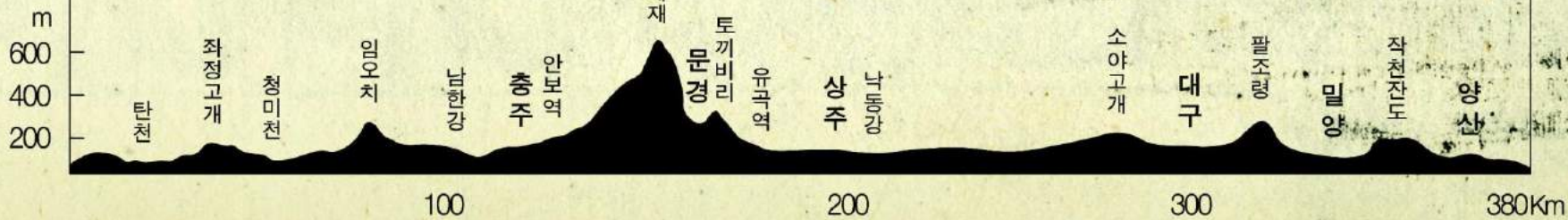
신증동:

령 鳥嶺)

山 在加恩縣西距伊火峴在縣西十八里忠
 嶺 俗號麻骨山以方言相似也在
 豐縣界俗號草站 串岬遷 為棧道縈紆屈曲幾六七里俗
 傳高麗太祖南正至不尋路有兔綠崖而走遂開
 路以行因稱 處所耶川 院前南流至串岬
 與加恩 合龍淵 在
 下流也有津渡 流入咸昌縣里
 鳥嶺 在縣西十七里延
 雞立

조령
 현의 서쪽 27리, 연풍현의 경계에
 있는데, 세상에서 새재(草站)라고
 부른다.

한양 ← 140Km → | 30Km | ← 210Km → 동래



영남대로 지형도

교귀정(交龜亭, 1470년 경 문경현감 신승명)

1751년 6월 15일 영영일기(嶺營日記)

조재호(趙載浩, 1702~1762)

건륭16년 6월 15일. 맑음.

아침 식사 전에 안보역(安保驛)을 출발하여 식사 후에 조령관(鳥嶺關) 서문(西門) 밖에 이르니 조령관 별장(鳥嶺關別將) 조세대(趙世大)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삼가 마중하였다.

문루(門樓)에 올라 잠시 휴식한 뒤에 쌍가마를 타고 교귀정(交龜亭)에 이르니 옛 관찰사가 벌써 도착해 있었다. 관인(官印)과 병부(兵符)를 절차에 따라서 전하고 받은 뒤에 내려왔다. 문경 현감(聞慶縣監) 홍력(洪櫟), 유곡 찰방(幽谷察訪) 임형원(林馨遠), 지례 현감(知禮縣監) 이복상(李復祥), 조령 별장(鳥嶺別將) 조세대(趙世大)가 5리 길을 와서 영서(令書), 유서(諭書)를 삼가 맞이하여 ……



光緒庚辰改築
別將申永植



死矢所

則

王願漢權壻論先出無

영양왕(嬰陽王, 재위 590년~618년)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었다.
 “지금 신라가 우리의 한강 이북 땅을 차지하여 자기들의 군현으로 삼으니, 그곳의 백성들이 애통하고 한스럽게 여겨 한시도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저를 어리석고 불초하다 여기지 마시고 병사를 주신다면 한번 쳐들어가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나이다.”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온달이 길을 떠날 때 맹세하며 말했다.

“계립현(鷄立峴)과 죽령(竹嶺) 서쪽의 땅을 우리에게 되돌리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침내 떠나가 아단성(阿旦城) 밑에서 신라군과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 장사를 지내려 하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아아! 돌아가십시다.”

드디어 관을 들어 묻을 수 있었다. 대왕이 이를 듣고 비통해하였다.

悲慟曰

為流

於我

地

國

割我

渥威

吾女

克及

達為

武帝

신증동

계립령)

계립령(鷄立嶺)
 속칭 겨릅산(麻骨山)이라고 하는데,
 방언으로 서로 비슷하다. 현의 북쪽
 28리에 있는데, 신라 때의 옛길이다.

山 在加恩縣西距伊火峴在縣西十八里忠
 嶺 俗號麻骨山以方言相似也在鳥嶺在縣西二
 縣北二十八里乃新羅時舊路
 豐縣界俗號草站
 傳高驛路以處所
 與加川合龍
 下流入
 大灘在虎溪縣西
 有五里龍淵之
 有二一在縣南所屯
 其源如綫每
 出岩穴其源如綫每
 三三一三

문경의 옛길 - 토끼비리



신증동국0

流下 合川與 處路傳 號豐 嶺山

천, 串岬遷)

관갑천(串岬遷)

곧 용연(龍淵)의 동쪽 언덕인데, 토천(兔遷)이라고도 한다. 돌을 파서 사다릿길을 만들었는데, 구불구불 거의 6, 7리나 된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고려 태조가 남쪽으로 쳐 와서 이곳에 이르니 길이 없었는데, 토끼가 벼랑을 따라 달아나면서 길을 열어주어 갈 수가 있었으므로 토천(兔遷)이라 불렀다.”한다. 그 북쪽의 깎아지른 봉우리에 돌 성터가 있는데, 옛날에 지키던 곳이다.

源縣里虎與出流雞 如南龍溪所俗至立 綫所淵縣耶離串嶺 每屯之西川山岬一 界里忠 雞立

토끼비리 금석문



<1714년의 토끼비리 금석문>

康熙五十三年甲午三月日
兔棧路改修 ○○○○石上
大化主 呂泉 金仁立
赤(?)谷 吳卞一
尙州 金礼遠
山○ 沈起立
化主 處士 林守崗
朴信明 朴信明
禹白業 禹○○
供養主僧 永重
別佐僧 太全



風生川



도

화)

권신응

744년



石岘一洞
今社屋

庚申年
石岘一洞

石岘一洞
今社屋

감사합니다.